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하동지구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조감도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개발조감도
 위 치 : 하동군 금성면 갈사-기역리 일원
 사업기간 : 2008년 ~ 2015년
 사업규모 : 5,016㎡(170만평)
 사 업 비 : 1조5,970억원
 유치업종 : 조선소, 조선 기자재 등
 사업시행자 : 하동군, 하동지구개발사업단(주)
 유망기업 3,152사
 총면적 5,016㎡
 조성기간 2008년

목 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관련 소식 1 ○ LH공사, 경남혁신도시 신사옥 착공식 개최 ○ 건설기술용역업체 선정 방식 제도로 투명성 향상 ○ 경남도, 지역건설산업 발전 위해 안간힘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하동지구 본격적 개발 시동 ○ 경남 친환경건축의 장(場), 2012 경남 건축문화제 개최 ○ 경남도, 주거복지 우수기관 대통령 표창 수상 ○ 풍력산업의 메카 경남!!! 대한민국 유일의 풍력전문전시회 개최 ○ 경남도, 2012년 건설공사 품질관 실적 전국 으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정보 9 ○ 건설기술용역 「표준과업지시서」 제정·보급 추진 ○ 산업입지개발법 시행령 개정 국무회의 의결 ○ 「2012 제1회 대한민국 녹색건축대전」 개최 ○ 국토지리정보원, 최신 '독도 지형도' 공개 ■ 신기술 정보 13 ■ 건설기술심의 현황 14 ■ 계약심사 현황 14 ■ 기술인 나눔 정보 15
---	---



내공사, 경남혁신도시 신사옥 착공식 개최

- 11월 20일, 진주혁신도시 신사옥 부지에서



〈LH공사 신사옥 착공식에 참석한 도지사권한대행〉

경남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중 가장 규모가 큰 LH공사(사장 이지송)가 11월 20일(화) 오후 2시, 경남진주혁신도시 신사옥 부지에서 착공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이전준비에 들어갔다

이날 착공식에는 임채호 경상남도지사 권한대행,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이지송 LH공사 사장, 김재경, 박대출, 조현룡 국회의원, 정판용 경상남도의회 부의장, 이창희 진주시장을 비롯한 지역주민, 공사 임직원 등 2,000여 명이 참석하였다.

경남 진주혁신도시로 이전하는 LH공사 신사옥은 지상 20층, 지하 2층 연면적 139,295㎡ 규모로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 효율 1등급 기준보다 연간 에너지 소비량을 50% 감축한 우리나라 최초의 초에너지 절약 건축물로 건립되며 태양광발전설비, 태양 열시스템, 지열냉난방시스템, 고효율 조명기구 등이 도입될 예정이다.

공사시공은 현대건설, 계룡건설산업, 도원이엔시가 참가한 가운데 경남업체로는 STX건설, 중앙건설이 참여하며 총 공사비 3천500억 원이 투입되어 2014년 12월 준공 예정이다.

임채호 경상남도지사 권한대행은 이날 환영사에서 "LH공사 신사옥 착공을 계기로 경남혁신도시는 명실상부하게 진주와 서부경남의 도약을 선도하는 핵심기지가 될 기초가 될 것"이라며, "진주로 옮겨오는 임직원과 가족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LH공사는 국민주거안정 실현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발전을 선도하는 기관으로서 경남으로 이전이 완료되면 미래의 첨단주거산업, 녹색도시 건설 등과 연계하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해 경남혁신도시가 서부경남 거점도시로서 선도적인 역할수행과 일자리 창출 및 인구유입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청사 내 박물관, 도서관 등 커뮤니티시설은 지역주민에게 개방해 지역공동체 역할을 할 것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비롯한 11개 공공기관의 이전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진주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이전하는 임직원들의 불편이 없도록 주택, 학교, 교통, 의료 등 정주여건과 조성과 함께 경남혁신도시를 인구 38천 명의 자족형 명품도시로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 자료 : 건설지원과 공공건축담당 (055)211-4632

건설기술용역업체 선정 방식 제도 개선으로 투명성 향상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으로 PQ기준 등 개선

현행 건설엔지니어링 용역업체 선정 방식 제도 개선을 통해 투명성을 향상하고 업계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는 건설엔지니어링 물량이 줄어들고 수주경쟁이 과열되면서 발생하고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공정성과 투명성 등을 강화하여 기술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다.

우선 업체부담 완화를 위해 PQ, SOQ, TP 평가대상 용역비를 상향 조정하고 기술경쟁이 실제로 필요한 고도기술 용역에만 SOQ, TP가 시행될 수 있도록 용역비 기준을 각각 5억 원씩 상향 조정하고, 금액 기준에 해당되더라도 발주청별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사전 승인을 얻어야만 SOQ, TP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는 'PQ 세부평가방법'을 발주청별로 특성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특정업체에게 유리한 기준 마련 등 특혜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설계PQ 세부평가기준 제·개정 시 사전에 7일 이상 관계자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다.

특히 평가의 공정성을 배가하기 위해

발주청은 평가위원 명단 및 세부평가내용을 포함한 평가결과서를 발주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토록하여 투명성을 향상하였으며, 건설기술용역업계 공생발전을 위해 과도한 실적제한 및 공동도급업체수(컨소시엄)에 대한 제한을 금지하여 중소기업의 입찰참여 기회를 확대하였으며, 기술적 차별성이 드러나기 어려운 5억미만의 소규모 용역은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평가 항목을 생략하고 적격심사만으로 용역사를 선정하도록 개선하였다.

이에 따른 SOQ, TP에 참여하여 탈락한 상위 3개 업체에 대해서도 설계 보상비를 지급토록 제도를 개선해 용역업체의 부담을 경감함은 물론 일괄입찰과 같이 우수한 설계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경남도 관계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연간 30여건의 건설기술심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역할을 강화하여 1년간 80여건에 이르는 도내 PQ 심사의 투명성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용역비		기본계획/ 기본설계/ 건축설계	실시 설계
현행	개선		
2.5~5억	2.5 ~10억미만		PQ
5~10억	10억이상 ~15억미만	PQ 및 기술자평가	PQ
10~20억	15억이상 ~25억미만		PQ 및 기술자평가
20억원 이상	25억 이상	PQ 및 기술제안서	

<PQ, SOQ, TP 용역비 규모 조정 내용>

▶ 자료 : 회계관 기술심의팀당
(055)211-3552

경남도, 지역건설산업 발전 위해 인간힘...

- 11월 20일, 침체된 지역건설산업 활로
모색을 위한 민관합동 연찬회 개최



〈지역건설산업 발전연찬회 전경〉

경남도는 최근 건설경기 침체와 하도급 물량 감소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건설업계의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침체된 지역건설경기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지역건설산업 발전연찬회를 11월 20일(화) 오전 10시 30분 창원 풀만호텔에서 개최하였다. 연찬회에는 경남도 강중구 도시방재국장, 대한건설협회 경남도회 여환부 회장, 대한설비건설협회 경남도회 김재홍 회장,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울산경남도회 박상주 회장 등 건설관련 업체대표 160여명과 관계 공무원 40여명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경남도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시책 설명, 2012년도 자랑스러운 건설인상 시상, 김영성 교수 특강, 건설단체의 건의사항 발표순으로 진행됐으며, 특히, 지역업체 하도급 확대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건설인 7명에게 자랑스러운 건설인상을 시상하였다.

올해 수상자는 종합건설업체에 (주)덕산토건(대표이사 조영돈), 대창건설(주)(대표이사 박창학), 흥한건설(주)(대표이사 박호섭), 전문건설업체에 (주)평화건설(대표이사 최용철), (주)한창테크(대표이사 강동필), (주)개척사(대표이사 신동정), 개인부문에는 성동건설(주)(대표이사 박종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자랑스러운 건설인상은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는 건설업체와 개인을 대상으로 시·군, 건설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이날 연찬회에서 대한건설협회 경남도회는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지급을 위한 공사 예비비제도 도입을, 전문건설협회 경남도회는 적격심사 낙찰하한률 상향 조정을 건의하였으며, 설비건설협회 경남도회는 지역업체 하도급 확대를 위해 대형사업장에 대한 민관합동 현장방문 세일즈단 구성 등 제도개선 과제를 선정하여 건의하였다.

경남도 강중구 도시방재국장은 “이번 연찬회에서 제시된 지역건설업계의 건의사항에 대하여 내부검토를 통해 도의 시책에 반영하여 추진하고, 법령 등 제도개선 사항은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침체된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활로를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자료 : 도시계획과 도시행정담당
(055)211-4315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하동지구 본격적 개발 시동

- 갈사만 조선산업 해면부 공사 착공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조감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GFEZ) 하동지구에 5.61km²(육지부 3.17km², 해면부 2.44km²)규모의 갈사만 조선산업단지가 지난 10월 해면부 공사가 착수되면서 본격적으로 개발되고 있다. 갈사만 조선산업단지는 2003년 지정된 GFEZ 하동지구 중 핵심단지로 드릴쉽, LNG-FPSO, FSRU 등 고부가가치 해양플랜트를 중심으로 조선 및 기자재업종 등이 입주하여 해양조선산업 패러다임 변화(조선→해양플랜트)에 부응하는 첨단 조선산업단지로 조성될 계획이다.

하동군 갈사만이 GFEZ로 지정되면서 곧바로 개발에 착수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국제적인 금융위기로 인한 조선경기침체 등 외부적 요인과 사업비 확보에 필수적인 금융기관의 PF대출 어려움 및 입주희망기업에 대한 토지공급 시기 지연으로 분양계약에 애로가 있어 사업이 지연되었다. 지난 2월에 한신공영(주)와의 공사도급계약 체결, 5월에 최대 실수요자인 대우조선해양(주)의 토지분양계약금 110억원 납부와

한신공영(주)의 공사도급계약 이행보증금 485억원 납부가 연이어 진행됨으로써 본격적인 사업착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현재 실수요자인 대우조선해양(주)과 하동군에 각각 660천m², 330천m²를 분양 완료하였고 해양플랜트 기자재업체인 (주)스틸플라워와도 분양협의를 진행하는 등 잔여부지의 투자유치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체면적 5.61km² 중 해면부 3.17km²의 매립에 따른 어업피해 보상은 서울대학교 해양연구소가 '14. 6월까지 조사할 계획이며, 10. 9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으로부터 시설항로표지허가를 득하여 10. 24일 등부표 6기 설치를 완료하였고 현재 매립예정지 주위에 17km에 달하는 오탁방지막 설치가 완료되면 호안공사 및 준설토 매립 등 12월부터는 해면부 공사가 본격적으로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육지부에 해양플랜트 핵심원천기술 및 설계 엔지니어링 기술 확보를 위해 2016년 완공을 목표로 16만 5,000m² 부지에 국비 448억원을 비롯한 총 725억원을 들여 '해양플랜트 종합시험연구소' 건립을 위해 이미 부지조성을 완료하였으며 11월부터 건축공사가 착공될 예정이다.

본격적인 공사와 더불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하동사무소(소장 제윤익)에서는 투자유치를 위해 갈사지구 타깃기업 D/B 구축, 국제박람회 참가 및 해외 선진기술 연구소-엔지니어링 기업 방문 투자설명, 국내 조선소 및 협력업체 대상 투자사업설명회 개최 등 실수요자 확보와 분양에 총력을 기울여 개발사업이 가속화 되도록 지원할 것이다.

▶ 자료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하동사무소 (055)880-6512

경남 친환경건축의 장(場), 2012 경남 건축문화제 개최

- 11월 7일 ~ 10일, 진주시청에서



<2012 경남 건축문화제 개막식 전경>

21세기 경남의 친환경건축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게 될 2012 경남 건축문화제가 11월 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고향을 상상하다 Imagine'를 주제로 진주시청(1층 로비, 광장, 시민홀 등)에서 개최됐다.

경남도와 (사)경남건축문화연합에서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경남 건축인의 화합과 위상 강화, 건축문화 인프라 확충 및 미래 경남의 건축상을 정립하기 위한 것으로, 2개 공모전(제21회 경남건축대전, 제7회 집그리기대회) 수상작 전시, 건축사 및 교수 초대전, 일본 쿠마모토현 아트폴리스 건축작품전, 경상남도 우수주택 전시, 도시재생(유럽사례) 초대전, 경상남도 근대건축물 사진전, 친환경 건축자재전을 전시하는 등 그동안 지역에서 보지 못한 다양한 건축문화의 감상기회를 제공했다. 특히, 11월 7일 오후 3시 열린 '근대 건축문화유산 보존과 활용방안'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는 수많은 기억들의 축척과

흔적들을 간직한 근대건축문화 유산에 대한 활용방안을 논의하고, 향후 경남 건축의 미래를 이끌어 갈 대학생들의 경연장인 '건축올림피아드'도 열렸다.

▶ 자료 : 친환경건축과 환경건축담당
(055)211-4244

경남도, 주거복지 우수기관 대통령 표창 수상

- 11월 19일, 제8회 주거복지인 한마당 대회에서 수여



<경남도, 우수 주거복지사업 대통령 표창 수상>

경상남도는 지난 11월 19일 국토해양부가 주관한 제8회 주거복지인 한마당대회에서 우수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한 공로로 영예의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또한, 이 자리에서 경남도의 주거복지 우수사례를 발표하며 참석자들과 이러한 성과를 공유하였다.

경남도는 전국 지자체, LH공사, NGO 등의 주거복지개선 노력에 대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추천위원회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공동주택 품질 검수단 운영, 공동주택 무(無)장애 환경 설계기준 운영 등의 저소득 계층, 사회적 약자(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와 도민을 대상으로 추진해 온 주거복지 시책이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5년부터 시행된 '공동주택 무(無)장애 환경 설계기준 운영'은 아파트 건립 시 장애인과 노약자가 불편 없이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였으며,

2011년부터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과 공동주택 품질 검수단 운영 제도를 신규시책으로 추진하여 서민주거안정 및 아파트의 품질향상을 위한 노력과 성과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사회취약계층 자가 주택 개·보수 지원사업,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그린홈) 사업,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 도 주택종합계획수립, 보금자리주택 건설지원 등 저소득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사업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

경남도 강중구 도시방재국장은 "이번 주거복지 우수기관 선정을 계기로 도민들의 주거안정과 복지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및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자료 : 친환경건축과 건축행정담당
(055)211-4413

풍력산업의 메카 경남!!! 대한민국 유일의 풍력전문전시회 개최

- 신재생에너지분야 전시 중 풍력산업을 위한 전시 처음으로

- 학술행사, 세미나, 그린산업특별관, 체험존 등 다채로운 행사

풍력산업의 중심지인 경상남도 창원에서 대한민국 유일의 풍력 전문전시회인「2012 대한민국 풍력에너지대전」이 오는 12월 5일부터 12월 7일까지 3일간 창원 CECO에서 개최된다.

전국 풍력 시스템(80%), 부품(50%) 업체가 밀집해 있는 동남권의 중심지인 경상남도가 주최하는 이번 전시회는 풍력시스템관, 풍력부품관, 풍력테스트베드 홍보관, 풍력산업주제관, 그린산업 특별관 등 국내외 80여개사 300부스가 전시될 예정이다.

현재 국내에는 태양광전시회를 비롯해 다수의 신재생에너지관련 전시회들이 개최되고 있으나, 풍력특화전시회로서는「2012 대한민국 풍력에너지대전」이 유일하다.

이번 전시회는 풍력특화 전시회인 만큼 국내 굴지의 풍력발전업체인 유니슨(주)을 비롯하여 용현BM, 삼원테크(주), (주)스페이스원, 모젠코리아, 정인테크(주), 영남산업(주) 등 풍력핵심부품 생산업체가 두루 참여한다.

경상남도에서는 이번 전시회를 유럽발 경제위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산업 위축과 국내 풍력산업의 열악한 현실 등으로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련 기업에 폭넓은

마케팅의 장을 마련하여 수출활성화와 발전된 기술력을 선보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그리고 이번 전시회를 국내 풍력산업의 활성화와 풍력부품 수출화의 선도적 입지 확보를 위해 시스템기업과 부품기업간의 네트워크, 국내기업과 해외기업간의 네트워크, 풍력산업과 국민들간의 네트워크라는 3가지 네트워크 구성 원칙 아래 산업에 도움을 주는 알찬 전시회가 되도록 준비하고 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수도로서 경남의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그린산업 특별관을 구성하여 태양광, 연료전지 등 다양한 그린산업의 발전된 면모를 보여줄 예정이다.

특히, 중앙정부와 함께하는 정책세미나와 전문가기술 세미나, 노르웨이 해상풍력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향후 풍력산업의 국내외 시장개척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구축하고 국내외 석학 300명이 참여하는 한국 풍력에너지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는 해상 풍력을 위한 실증단지, 전기제어, 블레이드, 시스템 성능평가 등 주제에 대한 강연이 있으며, 총 100여 편의 논문이 발표되어 풍력아카데미에 대한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그 외 풍력발전기만들기, 풍력자동차만들기, 전자번개만들기, 콜라건 전지만들기 등 관람객들을 위한 다양한 체험행사도 준비하고 있다.

이번 전시회를 준비 중인 경상남도 최만림 동남권발전국장은 “최근 유럽, 미국발 경기 침체 등으로 풍력산업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산업전반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러한 경제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우리 도가 이번 전시회를 준비하였으며, 이번에 개최하는 풍력에너지대전은 우리나라 풍력산업의 미래를 향한 첫 단추를 끼우는 중요한 전시회인 만큼 업체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전시회가 되도록 행사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2 대한민국 풍력에너지 대전 포스터〉



▶ 자료 : 친환경에너지과 신재생에너지개발담당 (055)211-2734

경남도, 2012년 건설공사 품질관리 실적 전국 으뜸

- 건설공사 품질 높여 부실시공 없는
경남 건설에 기여...

경상남도도로관리사업소의 2012년 건설공사 품질관리 시험 실적이 전국 15개 시·도중 단연 으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올해 10월 말 조사 결과를 보면 경상남도는 3,894건에 2억6천5백만 원이고, 그 뒤로 대전광역시 2,684건에 2억1천만 원, 경북도는 2,799건에 1억9천6백만 원의 실적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런 추세라면 올해 목표인 4,300건에 2억9천만 원은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올해 건설분야 예산 감소 및 건설경기 침체 속에서 타 시·도는 실적이 줄고 있는 실정인 점을 감안하면 더욱 더 빛나는 성과라 할 것이다.

한편, 경상남도도로관리사업소 품질시험실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국공립시험기관으로 1982년 2월에 설치되었으며, 현재는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직원 5명으로 토질, 골재, 아스콘, 콘크리트, 석재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총 53종의 시험을 실시하고 있으며,

노후 시험기기 교체 및 신기술·신공법에 대응하기 위하여 만능재료시험기, 현장 CBR시험기 외 8종, 아스콘함량분석기, 자동평판재하시험기 외 2종을 구입하는 등 매년 예산을 투입함으로써 품질시험의 질적인 향상을 추구하고 있다.

또한,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올해 5월 도내 건설관련 공무원 140여 명이 참석한 2012년 건설공사 품질관리 실무 교육을 통해 품질관리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철저한 품질관리로 부실시공을 사전 예방하는 등 전문지식 함양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내년에는 도내 건설관계자(엔지니어링 실무자 및 현장 소장 등)에게도 품질 실무 교육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로관리사업소는 앞으로 건설공사에 대한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하여 건설공사 부실시공 방지는 물론 건실 시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자료 : 도로관리사업소 도로품질관리팀당
(055)211-5093



건설기술용역 「표준과업지시서」 제정·보급 추진

- “발주청 일방·우월적 지위에서 상호
동등한 입장으로 글로벌화”

앞으로는 건설기술용역 과업지시서에 “발주청의 의견에 따른다”, “예산범위 안에서 업무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사라진다. 이러한 문구들은 발주청에서 우월적 지위를 앞세워 추가로 과업지시를 할 수 있는 근거로 악용할 수 있어, 설계엔지니어링사의 입장에서는 비용부담 증가로 이어지는 독소 조항이나 이를 거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국토해양부는 과업지시서상 관행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발주청과 설계엔지니어링사간 불공정 요소를 삭제하고, 선진 국제 관행을 반영한 건설기술용역 표준 과업지시서를 제정하여 금년말 정부기관, 지자체, 공사 등 공공 발주청에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로·철도 및 항만부분 표준 과업지시서는 현재 관계기관 협의중으로 연말까지 확정하여 보급할 계획이며, 그 밖에 댐·하천·공항 및 지하철 분야는 연말까지 시안을 마련하여 내년 초에 보급하게 된다.

“과업지시서”란 타당성조사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 등 설계도서를 작성하기 위한 조사·계획·설계 등 과업 단계별로 과업의 범위 및 업무 수행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한 것으로, 용역계약서에 첨부된다.

보급 추진중인 표준 과업지시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내년부터 전면 시행하는 ‘건설공사 설계 프로세스 제도개선’을 반영

(현행) 실시설계에서 시공도면을 요구하거나, 설계단계별로 요구하는 도면간 중복이 많아 업계부담 및 비효율 초래

(개선) 설계단계별 중복 도면작성 및 과도설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단계별 업무구분 및 작성도면을 과업지시서상에 명확히 하여 도면량이 약 50% 감축되도록 하였다.

②발주청과 설계용역사간 불공정 소지 개선

(현행) 구두로 추가 업무 지시하고, 적정대가를 미지급

(개선) 추가과업이 필요한 경우 발주청과 설계사가 서면으로 협의하도록 하고, 과업량이 증가할 경우 설계비를 정산하도록 하였다.

③국제계약기준 반영

(현행)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과업지시서에 의한 업무수행으로 해외 진출시 클레임 처리 미숙 등 혼선

(개선) 설계사의 질의에 발주청은 14일 이내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는 등 국제표준인 “FIDIC* 클라이언트/컨설턴트 표준서비스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였다.

④실비정액가산방식 적용

(현행) 공사비 총액대비 효율방식을 적용함에 따라, 과업의 난이도는 반영되지 않고 있음

(개선)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여 과업의 난이도, 업무지역, 신설과 개량 등 업무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가 및 설계변경비를 산정토록 하였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표준 과업지시서” 제정으로 발주청과 계약자간의 일방적이고 불공정한 관계가 개선되어 기업 부담이 완화되고, 과업지시서의 표준화 및 글로벌화로 엔지니어링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분쟁요인 사전 차단이 기대되며, 과업지시서의 모든 내용을 입찰 공고시 함께 공개하도록 하여 과업의 범위를 모른채 수주하여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해소되는 효과도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표준 과업지시서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http://www.mltm.go.kr>) 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열람할 수 있다

▶ 자료 : 국토해양부 기술기준과
(02)2110-6304

산업입지개발법 시행령 개정 국무회의 의결

- 해외유턴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산업단지 입주 지원

국토해양부는 해외유턴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이 산업단지에 신속하게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11.13)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해외유턴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 산업단지 입주 지원

○ 해외유턴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이 산업단지에 입주를 원하는 경우 해외유턴기업은 입주 우선권을 부여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해외유턴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국내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이 기대된다.

② 산업단지내 산업시설용지에 입지할 수 있는 시설 추가

○ 종전에는 공장, 지식산업 관련 시설, 문화산업 관련 시설, 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 재활용산업 시설, 자원비축시설, 물류시설 등 총 7개의 시설만 산업시설용지에 입지할 수 있었으나,

○ 에너지공급설비, 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산업단지 안으로 이전하는 대학시설 등을 추가하여 급변하는 산업구조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들 시설이 산업시설용지에 입지할 경우 조성원가로 저렴하게 분양할 수 있게 되어 산단 입주기업과 직접 연계, 시너지효과 및 기업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③ 준산업단지 및 공장입지유도지구 재정지원 면적기준 완화

○ 국가재정 지원 대상을 준산업단지의 경우 현행 10만 제곱미터 이상에서 7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공장입지유도 지구는 30만 제곱미터 이상에서, 15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완화하였다.

이를 통해 도시 주변에 무분별하게 입지하는 개별공장들을 계획적인 틀에서 정비하고 관리하는 제도가 활성화되도록 하여 기업의 입지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자료 : 국토해양부 산업입지정책과
(02)2110-8175

「2012 제1회 대한민국 녹색건축대전」 개최

- 11월 12일~23일 녹색건축물 시상식과
컨퍼런스 개최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이하 국건위)와 국토해양부는 「2012 제1회 대한민국 녹색건축대전」(이하 녹색건축대전)을 서울역사박물관에서 개최(11.21~23일)했다.

녹색건축대전은 녹색건축물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 우수사례를 홍보하기 위하여 국건위가 주최하고 국토부 등이 후원하는 행사로, 녹색건축물의 우수사례를 공모하여 시상식 및 전시회를 개최하고 녹색건축 컨퍼런스 등 녹색건축 관련 문화행사로 진행했다.

녹색건축대전은 “지속가능한 녹색건축 창출”을 공모주제로 건축물 패시브디자인 활용 및 신·재생에너지의 사용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한 준공된 녹색건축물을 대상으로 공모(9.3~10.12)하였으며 총 12점을 선정하여 시상했다.

대상(1점, 국건위 위원장상)은 ‘배제대학교 국제교류관’이 선정되었으며, 설계자 아이아크건축사사무소에는 대상상패와 상금 500만원, 시공자 (주)현대건설에는 대상상패, 건축주 배재학당에는 현판이 각각 주어졌다.

최우수상(3점)으로서 국토해양부 장관상에는 ‘성남삼평동 우체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에는 ‘대구울하 세계육상선수촌 1,2단지’, 지식경제부 장관상에는 ‘노원에코센터’가 각각 수상(설계자 상장 및 상금

300만원, 시공자 상장, 건축주 현판)했다. 우수상(8점)으로서 주관 및 후원 기관장상에는 ‘(수원영통) 이의초등학교’, ‘서울미술관’, ‘섬진강 문화센터’, ‘서교 스마트홈’, ‘국립 디지털도서관’,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포스코에너지 미래관’, ‘국립공원관리공단 생태탐방연수원(백암유수)’이 각각 수상했다. 시상식에는 각 분야의 수상자와 이상정 국건위 위원장, 주관·후원 기관장 및 관련 분야 종사자, 일반인 등 약 300여명이 참석했으며 시상식과 더불어 수상작품(12점)은 신진 건축사 설계공모 당선작품(7점)과 함께 11.21일(수)부터 11.23일(금)까지 행사장인 서울역사박물관 로비 전시홀에서 일반 국민에게 전시했다.

수상작 사례발표는 설계자가 녹색건축물을 조성하기 위해 고민하고 실무에 적용하게 된 내용들을 발표하도록 함으로써 녹색건축물을 실현하기 위한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이번 전시회는 녹색건축 실현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온 성과에 대해 녹색의 패러다임을 적극 반영한 녹색건축물을 직접 접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됐다.

또한, 행사 마지막 날(23일 14시)에는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주관으로 “녹색건축 정책과 효율적 조성” 컨퍼런스가 개최되어 녹색건축에 대한 국가목표와 추진정책 등 정부의 확고한 정책의지를 확인하고, 공공분야의 다양한 녹색건축에 대한 추진정보 및 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국건위의 이상정 위원장은 “이번 녹색건축대전이 다양한 행사내용으로 준비되어 국민생활 속에서 녹색건축에 대한 정책성과를 공감하고 녹색건축 발전에 기여하는 것과 더불어 수상작품을 출품한 우수기업에 대한 홍보의 장이 되었다.”고 밝혔다.

▶ 자료 : 국토해양부 녹색건축과
(02)2110-8994

국토지리정보원, 최신 ‘독도 지형도’ 공개

- 항공 레이저측량으로 독도를 가장 정밀하게 표현

우리 국토의 가장 동쪽에 있는 독도의 지형·지물과 지명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수치(디지털) 지형도’가 공개됐다.

국토해양부 국토지리정보원은 국가기본도(1/5천) 중 울릉도와 독도 일원의 수치지형도(‘11년 항공촬영, 12년 현지조사·편집)와 항공사진 등을 11월부터 공개했다.

이번 수치지형도에는 지난 10월 20일 신규 제정된 봉우리(대한봉, 우산봉)와 바위(해녀바위, 전차바위) 명칭 등 총29개 지명도 표기됐다.

금번 수치지형도는 ‘11년 9월 촬영한 고해상도(25cm급) 항공 측량에 의한 디지털 데이터를 활용, 지금까지 정부 기관에서 제작한 독도 지형도 중 가장 정밀도가 높다. 특히, 항공레이저* 측량으로 디지털 표고데이터를 확보(‘08)함으로써, 향후 독도의 보전·관리, 식생 등 연구에 필요한 경사도 및 경사방향 분석이 가능해 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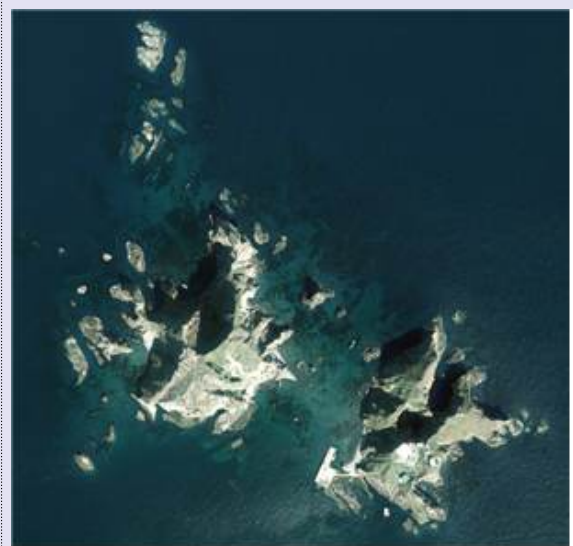
국토지리정보원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측량을 통해 정확한 독도의 지리정보를 국내·외에 제공함으로써 독도의 영토주권을 확고히 하는 데 기여할 계획이다.

이번에 공개되는 독도 수치지형도와 항공사진은 국토지리정보원 홈페이지(www.ngii.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치지형도(‘12.11, 1/5천)



항공사진(‘11.9)



▶ 자료 : 국토지리정보원 지리정보과
(02)210-2772



BOX형 외벽 단열갱품을 이용한 한중 콘크리트 보온양생공법 (SCSFM공법)

1. 신기술개발자

법 인 명	대건기술(주)
	미진정공(주)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

2. 신기술의 개요

- 지정번호 : 제676호
- 기술분야 : 건축
-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BOX형 콘크리트건축물의 외벽 구조체 공사시 적용하는 철제거푸집(일명 갱폼)을 단열재와 일체화시킨 단열거푸집(단열갱폼)을 활용하여 콘크리트의 수화열을 보존함으로써 동절기에 외벽체 콘크리트를 보온양생하는 공법이다.

(SCSFM : Self Curing System Form Method)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BOX형 콘크리트건축물 외벽 구조체에 적용하는 철제거푸집을 단열재(경질우레아 폼)와 일체화시켜 제작한 단열거푸집(단열갱폼) 및 이를 활용한 외벽체 한중 콘크리트 보온양생공법

※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www.kic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PVC발포품을 이용한 단열 보온형 복합 방수공법(KD-시스템)

1. 신기술개발자

법 인 명	(주)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
	극동크리트(주)

2. 신기술의 개요

- 지정번호 : 제677호
- 기술분야 : 건축
- 내용요약

본 신기술은 하부층에 단열층을 두어 일정 단열성능을 확보하여 단열성 추가(향상) 및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켰으며, 폐자원의 PVC를 재활용한 재생 PVC를 사용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온 환경문제를 해소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반턱 접합부 공법을 적용하여 시트와 시트간 일체화를 통해 접합부 안정성을 향상 시켰으며, 고신축성 탄성보강 접합부 테잎을 반턱 부위에 적용하여 구조물과의 동시 거동 시에도 방수층의 파단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물 거동 대응성을 확보하였다. 최상부에는 폴리우레탄 도막방수재와 Top-coat를 시공하여 장기적인 방수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옥상 방수 공법이다.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PVC시트에 PVC발포품을 일체화한 방수시트와 PE발포품과 알루미늄박판을 일체화한 시트를 합지하여 형성한 단열방수시트에 탄성보강 접합부 테잎을 시공하여 접합부 안정성 및 구조물 거동 대응성을 확보한 방수공법



건설기술심의 연왕

2012년 제7회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 결과

- 건 명 : 중동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 심의일자 : 2012. 11. 20 (화)
- 요 청 자 : 의령군

의안 번호	요청사항 (발주청)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심의결과
2012-7-1	실시설계 (의령군)	중동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 위 치 : 의령군 의령읍 중동리 · 사업내용 : 교량재가설 L=80m, 축제 L=316m · 사 업 비 : 146억원(공사비) · 사업기간 : 2013 ~ 2015년	조건부 의결

▶회계과 (O55)211-3554



계약심사 연왕

(단위:백만원)

기 간	분 야	건수	심사현황			비고	
			요청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2012년 11월말 현재 (누계)	계	659	736,032	686,890	49,142		
	공사	토목	271	448,128	414,171	33,957	
		건축	75	111,524	105,369	6,155	
		기타	60	86,635	82,035	4,600	
	용역	121	79,999	76,005	3,994		
	물품	132	9,746	9,310	436		

▶회계과 (O55)211-3543



기술사 시험 일정 안내

년도별/ 회 별	필기시험 원서접수	필기시험	필기시험 합격 (예정)자 발 표	응시자격 서류제출 및 필기시험 합격자결정 <방문제출>	면접시험 원서접수 <인터넷>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인터넷						
2012년/ 제96회	2012.01.13 - 2012.01.19	2012.02.12	2012.03.23	2012.03.26 - 2012.04.04	2012.03.26 - 2012.03.29	2012.04.28 - 2012.05.10	2012.05.18
2012년/ 제97회	2012.04.20 - 2012.04.26	2012.05.13	2012.06.29	2012.07.02 - 2012.07.05	2012.07.02 - 2012.07.05	2012.07.28 - 2012.08.09	2012.08.17
2012년/ 제98회	2012.07.20 - 2012.07.26	2012.08.12	2012.09.21	2012.09.24 - 2012.09.27	2012.09.24 - 2012.09.27	2012.10.27 - 2012.11.08	2012.11.16

기사 / 산업기사 필기시험 안내

년도별/ 회 별	필기시험 원서접수	필기시험	필기시험 합격 (예정)자 발 표	응시자격 서류제출 및 필기시험 합격자결정 <방문제출>	실기시험 원서접수 <인터넷>	실기시험	합격자 발표
	인터넷						
2012년/ 제1회	2012.02.03 - 2012.02.09	2012.03.04	2012.03.16	2012.03.19 - 2012.03.28	2012.03.19 - 2012.03.22	2012.04.21 - 2012.05.04	2012.06.01
2012년/ 제2회	2012.04.27 - 2012.05.03	2012.05.20	2012.06.08	2012.06.11 - 2012.06.14	2012.06.11 - 2012.06.14	2012.07.07 - 2012.07.20	2012.08.17
2012년/ 제3회	2012.08.03 - 2012.08.09	2012.08.26	2012.09.07	2012.09.10 - 2012.09.13	2012.09.10 - 2012.09.13	2012.10.13 - 2012.10.26	2012.11.23
2012년/ 제4회	2012.08.24 - 2012.08.30	2012.09.15	2012.10.05	2012.10.08 - 2012.10.11	2012.10.08 - 2012.10.11	2012.11.03 - 2012.11.16	2012.12.14

2012 대한민국 풍력에너지 대전

[WIND POWER KOREA 2012(WINDKO 2012)]

1. 기간 : 12년 12월 5일 ~ 7일
2. 장소 : 창원컨벤션센터(CECO) 전시장
3. 규모 : 7,827m²/ 300부스
4. 주최 : 경상남도
5. 주관 : (재)경남테크노파크, 한국풍력 산업협회, 한국풍력에너지학회, 다인씨앤엠(주)
6. 후원 :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녹색성장위원회,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재료연구소
7. 참가안내 : Tel 055-287-3547

E-mail windko2012@dain21c.co.kr

- ※ 자세한 사항은 2012 대한민국 풍력에너지 대전 홈페이지(www.windko2012.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외건설시장과 Global Way 전략 세미나

1. 일 시 : 2012년 12월 5일 14:00~17:30
2. 장 소 : 서울시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
3. 주 최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4. 주 제
 - 글로벌 기업들의 건축토목시장 전략과 시사점
 - 해외시장 사업모델별 핵심 역량 진단과 대응방향

- ※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홈페이지(<http://www.cerik.re.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건설정보 <http://gnci.gsnd.net>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재 요청 건설관련 자료 및 원고도 받습니다.

TEL : (055)211-3552~6

FAX : (055)211-3519

e-mail : moonsoo70@korea.kr

이 자료는 업무 참고용입니다.